

SKT-중진공-KASAD,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한다

**- 3개 기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공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 제조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솔루션 1년 무상 제공**

**- 산업 · 정부 · 협회 얼라이언스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One-Stop 지원**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중진공에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1. 3. 19]**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 및 운영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돕는 특급 도우미가 떴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www.kosmes.or.kr 이하 중진공) 및 한국스마트팩토리 데이터협회(협회장 김문겸, 이하 KASAD)와 함께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SKT와 2개 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더욱 취약한 중소 제조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조 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 공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자금과 AI, Cloud 기술의 통합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실시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초기에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95%가 솔루션에 만족하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약 48%가 운영인력의 부족, 시스템 활용의 어려움 등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개 기관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운영상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공급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데이터 수집장치,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소기업에게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설비운영 최적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자문위원회, 스마트공장 솔루션(MES, ERP 등) 공급기업, 데이터 수집장치 제조기업, 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공급기업 등으로 구성*

본 사업에서 SKT는 자체 개발한 Cloud 서버 기반의 스마트공장 AI 월 구독형 서비스인 ‘메타트론 그랜드뷰(Metatron Grandview)’를 12개월 무상 제공한다.

‘메타트론 그랜드뷰’는 공장 내 모터와 같은 주요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회전수, 진동 및 전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설비의 현 상태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실시간으로 예측해 효율적인 설비 운용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SKT는 ‘메타트론 그랜드뷰’를 통해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치 및 고장 전조의 알람, ▲설비 유지보수 기록의 DB화, ▲DB기반 설비특화 AI 분석 모델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초기 도입비용, 운영인력,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및 스마트 공장 사후관리\* 지원 대상 기업 수요 모집 및 선정을 담당하고, KASAD는 회원사를 통한 수요발굴, 데이터 수집장치 무상제공, 스마트 공장 및 ICT 기술 관련 컨설팅을 맡는다.

*\*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중진공 최학수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이 가능해 졌다”며 “협의체를 통한 ‘설비운영 최적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설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SKT 최낙훈 Smart Factory CO장은 “이번 협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게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1년 무상 지원함으로써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SKT는 앞으로도 ESG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AI, Cloud, 구독형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과 전통 제조 기술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 제조업 혁신 촉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SK텔레콤 PR실 김재익 매니저 (02-6100-6714)**

**<끝>**